

경주 남산
가이드북



경주남산

동남산 가는 길

CONTENTS

동남산 가는 길	3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 가는 길	4
월정교	6
인왕동사지	7
춘양교(일정교)	8
정순암 판소리연구소	8
상서장	9
해맞이 마을과 최햇빛 할아버지	10
마지막 신라인 고청 윤경렬과 고청기념관	10
불곡마애여래좌상	11
탐곡 제2마애불상군	12
옥룡암과 탐곡마애불상군	13
보리사 마애석불	14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15
갯마을과 경성북도산림환경연구원	16
화랑교육원과 석조감실	16
한강왕릉과 정강왕릉	17
통일전	18
서출지	18
남산리절터 동서3층석탑	20
염불사지	21
칠불암 마애불상군	22
신선암 마애보살상	24
경주남산 재밌게 보는 방법	25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26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27



慶州南山研究所

The Research Institute of Mt. Namsan in Gyeongju, Korea (T.H.E. R.I.N.G.)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이 경주 남산의 아름다움과 곳곳에 깃들어 있는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고, 유적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아름다운 남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퍼낸이 (사)경주남산연구소

www.kjnamsan.org

E-mail: kjnamsan@hanmail.net

경북 경주시 태종로 711번길 15(노서동)

Tel. 054-777-7142

Fax 054-776-7142

퍼낸날 2021년 10월 1일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창 054. 745. 5521

이 안내책자는 경주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설이 있다. 신라의 역사가 있다. 유적이 살아 숨쉬는 노천 박물관이 동남산 기슭과 남천을 끼고 웅기종기 모여 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답사의 길 떠나보자. 토함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내동평야를 가로질러 보리사 마애여래좌상의 평온한 미소를 받고 동남산을 감싸면서 흐르는 남천은 서라벌에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고 있다. 신라인들의 불국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남천은 오늘도 월명사(月明師)가 피리 소리로 달을 멈춘 월명리를 거쳐 월성을 구비 돌아 여유롭게 흐르고 있다. 남천의 모래처럼 우리도 오늘은 물길 따라 월정교, 인왕사, 춘양교, 상서장, ... 염불사까지 거슬러 올라 가보자. 월정교를 세운 경덕왕이 남산 삼화령에서 미륵 세존께 차공양하고 돌아오는 총담 스님을 만났다. 총담스님은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올렸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시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라 하신다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리,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들 이를 먹여 다스리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하고 생각한다면 나라 안이 되어 감을 알리라,
아이!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은 태평하리이다.

동남산 아래 돌부처, 유적, 유물들 그리고 화랑교육원, 산림환경연구원 모두가 안민가의 모습이기에 아침 햇살 받고 솔향기 맡으며 자연과 속삭이면서, 사뿐사뿐 가벼운 발걸음 옮겨 보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와 복원한 염불사지에서 바람결에 실려 오는 염불소리 들으며 평화의 염원으로 탑돌이를 해 보자.

○ 월정교 찾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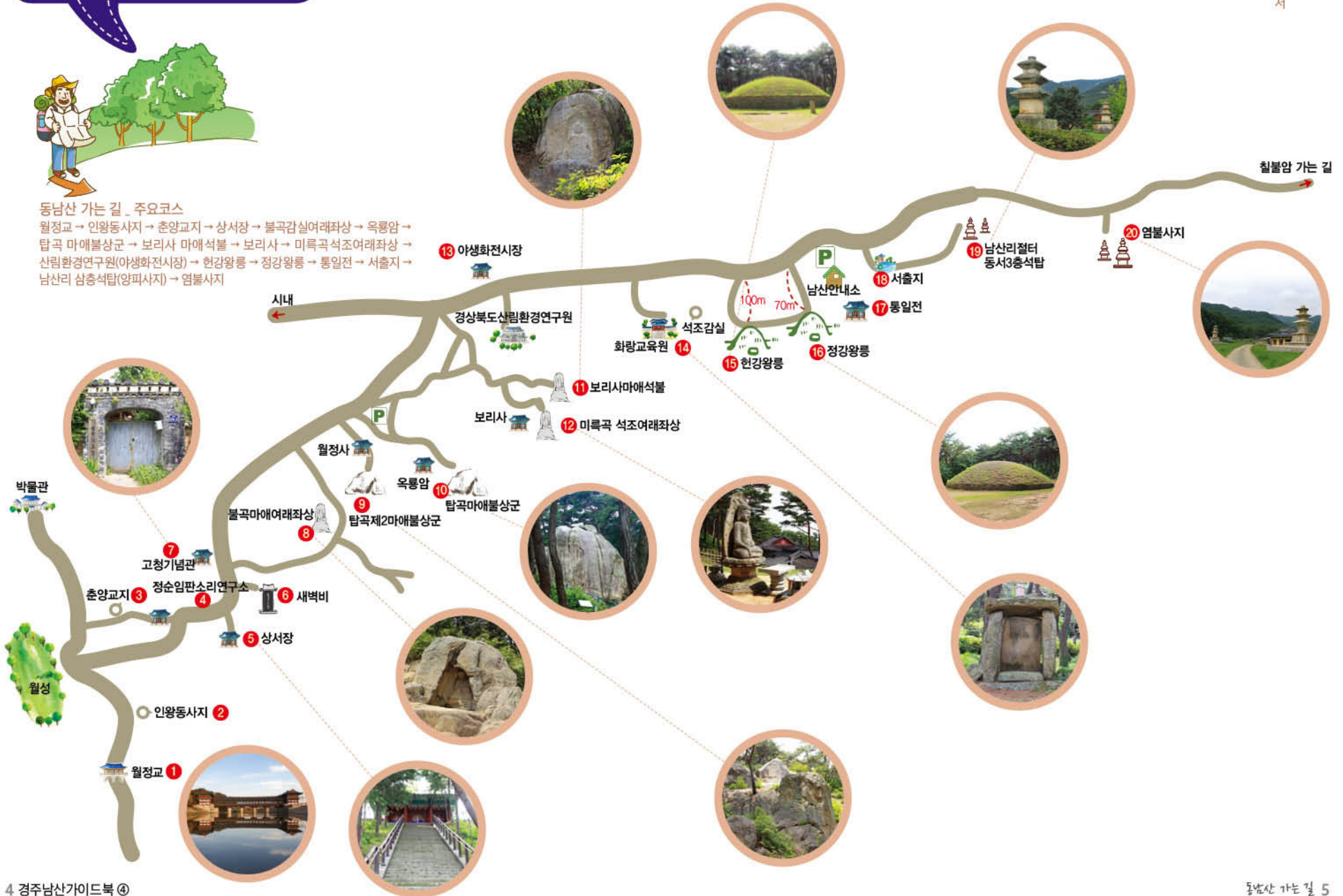
- 도 보: 버스터미널, 경주역 등에서 약 15~30분 소요.
- 승 용 차: 고속도로 나와서 3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오릉방향)하여 800m 정도 진행하여 다리(남천교) 직전에서 우회전 하여, 700m 지점에서 월정교 주차장이 있다.
📍경성북도 경주시 전원2길 11
- 택 시: 시내에서 월정교 주차장으로 가면 됨 5~10분 소요.
요금 3,000~5,000원 정도.
- 시내버스: 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 앞은 아님), 경주역 등에서 내남행(500, 502, 505, 506, 507, 508번) 버스를 타고 탐리마을에서 하차(약 10분 소요), 월정교 방향 도보로 약 7분 소요. 배차시간은 500번이 30분.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 가는 길



동남산 가는 길 주요코스

월정교 → 인왕동사지 → 춘양교지 → 상서장 → 불곡감실여래좌상 → 옥룡암 → 탐곡 마애불상군 → 보리사 마애석불 → 보리사 →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 산림환경연구원(야생화전시장) → 현강왕릉 → 정강왕릉 → 통일전 → 서술지 → 남산리 삼층석탑(양피사지) → 염불사지



통일신라의 번영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서다

월정교는 신라 천년 궁성이었던 월성을 감싸고 흐르는 문천 위에 놓인 다리다. 서러벌의 남쪽에서 왕경의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또한 왕궁에서 남산신성과 남산의 수많은 절들로 가는 통로이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인룡사, 천관사, 나정과 신궁, 창림사, 포석정, 오릉, 삼릉 등 수많은 역사유적과 만나게 된다.

『삼국사기』에 “**경덕왕 19년(760) 2월 구월 남쪽 문천 위에 월정(月淨)·춘양(春陽) 두 다리를 놓았다.**” 하였다. 당시 신라는 18만호 규모의 국제적인 대도시였고, 천년 역사 중 정치적·문화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번영하던 시기였다.

이후 고려 충렬왕 6년(1280)에 수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520년 이상 사용되었던 다리이다. 발굴조사결과 4개의 교각과 길이 63m, 폭 12m로 회랑 형태의 누각형 다리임이 확인되어 그렇게 복원하였다.

경덕왕 24년(765) 3월 3일 총담스님이 이 다리를 건너 귀정문(歸正門)에서 경덕왕을 만나 차 한 잔 올리고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올렸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시고,
백성들은 어린아이라 여기시면,
백성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줄 알리이다.
궁살거리며 사는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스스로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면,
나라 안이 가히 되서 감을 알리이다.
아~아~ 임금様게, 신하様게, 백성様게 한다면,
나라 안은 태평 할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남산을 내려와서 요석궁으로 들어갈 때 물에 빠진 다리는 19m 아래에 있던 유교(楡橋:느릅나무다리)였다



신라인의 눈물과 청성의 절

김인문(629~694)은 문무왕의 동생으로 22년 동안 당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외교활동을 펼치며 숙위(宿衛) 하였다. 신라와의 싸움에서 패한 당 고종이 김인문을 옥에 가두자, 왕은 강수를 시켜서 인문을 석방해 달라는 글을 지어 당 고종에게 보냈다. 당 고종은 애절한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문을 방면하였다.

인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인룡사를 짓고 관음도량을 열었다. 694년 김인문이 귀국하는 도중에 바다 위에서 죽으니, 미타도량으로 고쳐 왕생극락을 빌었다하니, 인룡사는 신라인들의 눈물과 정성으로 이룩된 절이다.

발굴조사결과 통일기의 쌍탑가람으로 확인되었고, 인룡사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절 앞 연못에서는 연꽃씨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인왕동사지로 명칭을 바꾸었다.



○ 춘양교지(일정교)^③ (사적 457호)



봄 햇살이 느껴지는 다리터에서

경덕왕 19년(760)에 월정교와 함께 세운 다리이다. 춘양은 봄의 햇살이니 이는 곳 동쪽다리이며 동·서편 교대와 날개벽 그리고 3개의 교각이 확인되었다. 길이 55m, 폭 12m, 교량의 높이는 5.5m 이상이다. 3개의 교각은 물 흐름의 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뱃머리형으로 만들었다. 교대와 교각은 모두 화강암을 다듬어 만든 돌다리로, 그 모양과 크기, 돌 못 사용법, 퇴물림식(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안으로 들어쌓는 방식) 축조법, 석재의 색깔과 재질이 모두 월정교와 같다. 신라의 우수한 교량 축조기술

을 알 수 있으며, 왕경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일정교(日精橋)가 춘양교라 하였다.

지금의 박물관 옆에 새로운 왕경지구가 확장되면서 이를 잇는 왕경대교가 만들어진다. 황룡사를 지나 박물관 쪽으로 폭 23m의 차도·인도·배수구가 구분된 계획도로다. 여기에서 연결된 도로가 일정교와 연결된다. 이 도로 유구는 박물관내 미술관 1층에 원형으로 전시되고 있다. 남산신성에 왕궁의 대규모 물류기지인 장창이 있었다. 왕경대로에서 일정교를 통한 물류수송 또한 남산과 뿔 수 없는 필수적인 교량이다. 이 다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문화를 비하하기 위하여 효불효교 또는 칠성교라는 이름으로 전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 정순임 판소리연구소^④

4대의 명창이 들리는 듯하다



보라색 갈퀴 꽃이 무너진 일정교 돌다리 사이에서 물감을 뿌린 듯 넝쿨 지어 피었다. 조그마한 집이 예쁜 정원과 잘 어울린다. 우리나라 최초 4대로 이어진 전통예술 판소리 명가1호 '취송당정순임판소리연구소'이다.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다. 문천의 갈대가 다리 입구에서 바람의 소리를 전할 때 걸쭉한 명창의 소리 한마디 들으면서 걸어가니 어깨춤이 절로난다.

○ 상서장^⑤ (경상북도 기념물 46호)

월성을 굽어보며 신라의 대문장가를 만나다



남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상서장은 남산 서북쪽에 있는 독서당과 함께 고운 최치원(857~?)선생의 유적이다.

경문왕 때 12살의 나이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장안에서 공부한지 7년 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881년 산동지방에서 일어난 황소의 난 때 지은 <격황소서>로 당나라에서 널리 문장가로 이름을 드날렸다.

이후 현강왕때 신라로 돌아왔으나, 골품제의 한계와 국정의 문란으로 뜻을 펼 수가 없었다.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리고 많은 저술과 비문을 남겼는데, 그 중 <계원필경>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문집이다.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선생은 고려 태조가 비상한 사람으로 천명을 받아 장차 나라를 열 것을 알고 편지로 문안하였는데, 그 글 중에 “**계경은 황영이요, 풍경은 청송이거**”라는 구절이 있었다. 고려 현종 때 선생이 고려 건국에 숨은 공로가 있다하여 내사령의 벼슬과 문창후라는 시호를 추증하고 문묘에 배향하였다. 그 후로 살던 집을 「상서장」이라 하였으니 태조 왕건에게 글을 올린 집이란 뜻이다. 또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린 곳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찾아가기

고속도로에서 남산(도당산고개)을 넘어 우측으로 진행하면 내리막 끝 부분에 주차장이 있다. 📍경주시 인왕동 276-3

○ 해맞이마을과 최햇빛 할아버지^⑥

한글 사랑으로 한 평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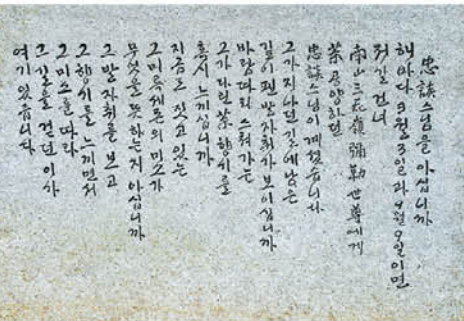
한글학자로서 한글 보급을 통해 민족의 얼을 심는 데 평생을 바친 선각자이었다. 우리말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우고, 외국어의 남용에 맞서 평생 가르침을 베푸시던 최햇빛 할아버지, 이 땅에 한글의 꽃 활짝 피는 날, 그 향내, 사랑하는 겨레의 노래, 하늘 땅 끝까지 메아리치리라. 외로운 길 걸으시면서 들려주시던 말씀 '밤길도 오계 건너 보면 새벽을 맞이한다.'



○ 마지막 신라인 고청 윤경렬과 고청기념관^⑦

외길 인생은 한줄기 빛이 되어

함북 주읍에서 겨레의 얼을 찾아 경주로 오신 고청 윤경렬 선생님. 일찍이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게 하려고, 세계 최초로 어린이 박물관학교를 열고, 천년고도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신라문화동인회를 창립하고, 문화유산보전활동을 펼쳤으며, 경주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지키셨고, 특히 경주남산의 유적을 직접 조사하여 널리 홍보하신 고청 윤경렬 선생의 생가이며, 기념관이다.



바위 속에 숨은 부처, 숨은 듯이 나투시네

너비 4.5m, 높이 3.2m 쯤 되는 바위에 무지개 모양의 감실을 파고 시골 할머니 같은 부처님을 새겨 놓았다. 얼굴은 고부조로 새기고, 신체는 약간 낮게, 대좌는 저부조로 조성하였다. 편평한 신체, 크고 둥근 얼굴은 명상에 잠긴 듯이 다소곳이 숙이고, 낮은 육계와 소매의 머리는 미끄러지듯 귀와 어깨를 덮었다. 몽툰한 코, 특박진 눈은 그림자가 어려 부드러운 눈썹과 명상에 잠긴 듯한 눈매를 그려낸다. 도톰한 입술, 뺨 등은 부드러운 볼륨으로 부풀어 있다. 네모난 어깨, 넓은 무릎은 육중하면서도 안정된 구도를 취하고 있다. 통견의 법의 사이로 드러난 가슴은 사각형으로 표현되었고, 깊고 강렬한 선각으로 새긴 옷 주름은 소매 사이로 흘러내려 폭포수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수인은 선정인으로 추정 되고 있다. 신라인들은 바위에 부처를 새긴 것이 아니라, 바위 속의 부처를 찾아내었다. 좁은 굴속에 있으면서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시골 할머니가 돌로 만든 집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 찾아가기
 통일전 방면 화랑교 건너자마자 우측 강둑길을 따라 900m 정도 가면 부처굴 입구가 이다. 불상까지 약 7분 소요. **경주시인왕동 180-3**

이 불상은 불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조각의 고식, 육계와 어깨, 수인과 소매, 옷 주름의 간결하고 거친 조각, 상현좌, 발 조각의 치졸함 등으로 보아 고신라 시대의 신라에서 가장 오랜 석불(마애불)로 꼽혀지고 있으며, 흔히 석굴사원의 선행 양식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 탐곡 제2마애불상군⁹

또 한무리의 마애불상군, 모습을 드러내다

탐골마을 입구 오른쪽에 월정사가 있다. 절 뒤쪽으로 50여 m 정도 산중턱 바위에 1994년 발견된 마애불상군이 있다.

마애불은 동면과 남면에 새겨져 있다. 동면에는 전각 안에 안치된 불상 1구와 코끼리 모슴의 사리 이운상, 5층 목탑과 소형 불상 9구가 새겨져 있다.

남면에는 선각의 삼존불입상이 복련의 연화대좌 위에 새겨져 있다. 불보살상의 상체는 결실되어 현재 허리아래 부분만 남아 있다. 법의의 옷주름과 영락 장식을 확인 할 수 있다. 수많은 상이 새겨져 있으나 정확한 모습과 만든 시대를 알 수 없다.



○ 찾아가기

옥룡암 입구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경주시 배반동 1132-69



○ 옥룡암과 탐곡마애불상군¹⁰

(보물 201호)

깨달음의 기쁨은 꽃이 되어 떨어지다

옥룡암은 작고 아담한 절이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저항지식인들이 머물렀던 절이다. 이육사도 1942년 7월부터 석 달을 이곳에 머물렀다. 봄이면 빗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유달리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절 뒤 높이 10여 m, 둘레 40여 m 바위 암벽에 사방으로 돌아가며 환상적인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바로 올려다 보이는 북면에는 9층 목탑과 7층 목탑이 있고 그 가운데 연화대 위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이 계신다. 탑 위에는 비천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날고 있다. 신라시대의 목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동쪽 면에는 본존과 보살, 하늘에서 날아 내려오는 일곱 구의 비천상이 있다. 불보살상 좌측 아래에는 돛 자리를 펴고 앉아 공양 올리는 스님상이 있다. 가히 환상적이며 그림 같다. 면적이 좁은 서면에는 부처님 한 분과 비천 두 구가 있다. 부처님 위의 비천상은 흔히 신라여인의 모습이라고 한다. 남쪽 면에는 삼존불과 함께 독립된 불상이 있다. 삼존불은 화목한 가족을 연상케 한다. 우협시 보살은 경직된 모습이고, 좌협시 보살은 부처님에게 응석을 부리는 듯하다. 남쪽면에만 목조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4면에 새겨진 불상과 탑들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회화적이다. 마당 남쪽에는 삼층석탑 1기가 우뚝 서 있다. 9세기 말에 조성된 탑이다. 이 절터에서 「神印寺」란 기와 명문이 출토되었다 하여 「신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신인사는 신인종의 명랑스님이 당나라의 군사를 몰아내기 위해 사천왕사에서 기도 중 부처님의 힘을 빌기 위해 이 바위에 만다라적인 부처의 세계를 조성하여 건립한 사찰이 아닐까?

○ 찾아가기

부처골 감실여래좌상 못미처 표지판이 있다. 입구에서 불상까지는 약 7분 소요

경주시 배반동 1132-69

○ 보리사 마애석불¹¹

(지방유형문화재 193호)

서라벌을 굽어 살피시는 남산 부처님

대나무 숲길을 지나 가파른 오르막을 150m 쯤 올라가면 마애불이 한 분 계신다. 힘든 길 오를 땐 짜증도 나지만,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환히 밝아진다. 생글생글 웃으며 반겨주신다.

경사가 급한 산허리에 높이와 너비 2.4m 정도 되는 바위에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전각을 세울 수도 없는 이 가파른 곳에 왜 불상을 조성하였을까? 연꽃 위에서 밝은 미소를 머금은 모습으로 넓은 서라벌 별판을 굽어보고 계신다, 저 멀리 보문들과 남산의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풍요롭고 가슴이 활짝 열린다. 이곳에서 언제나 서라벌을 굽어 살피시며 이 땅의 백성을 보살펴 왔으리라.

앞을 향해 약간 굽어 있는 바위 벽면에 거신광의 감실을 파고 불상을 새겨 놓았다. 나발은 양증맞을 정도로 귀엽고, 얼굴은 밝은 미소를 띠고 있다. 신체는 부드럽고 무릎과 대좌는 다소 졸렬하다. 9세기 말에 조성된 불상이다.



○ 찾아가기

마을 입구를 지나 보리사 주차장에서 왼편 산속으로 난 길을 따라 약 5분 올라간다.

경주시 배반동 산 66-1

미륵곡 석조여래좌상¹²

(보물 136호)

원만구족하신 부처님을 우러러 뵈다

보리사는 남산 일대에서 가장 큰 절이다. 옛 절터에 근세에 다시 세운 절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서라벌 경관이 장관이다.

이 절 왼쪽에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이 있다.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전형(典形) 불상이다.

대좌는 역센 복련 연꽃과 팔각의 중대석, 탐스런 앙련으로 된 삼단대좌, 결가부좌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긴 눈을 가늘게 내리 뜨고 있다. 종교적인 신비감이 어린다. 이마엔 백호의 흔적이 남아 있고 입가엔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신다. 옷자락은 석굴암 불상보다는 다소 거칠지만 유려하게 흘러내린다.

거신광으로 된 광배는 화려하다. 화려하고 부드러운 화염문, 여섯 송이의 연꽃으로 장식된 두 줄기의 선으로 신광을 나타내었고, 또 다섯 송이 연꽃으로 두광을 장식하였다. 7구의 화불(化佛)은 구불거리며 솟아 오른 줄기 위에 핀 연꽃에 앉아 계신다. 연화화생(蓮花化生)이다. 전체 높이 4.36m, 불상높이 2.44m다. 광배 뒷면에는 약사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약그릇을 들고 계신다. 앞면의 여래상은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고, 뒷면의 약사여래상은 9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 찾아가기

화랑고 입구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걸어 들어온 후 마을을 지나 보리사로 올라오는 길을 따라 온다. 약 10분 소요

경주시 배반동 산 66-1



○ 갯마을과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¹³



우거진 숲과 야생화는 길손을 반긴다

보리사 입구에는 옛날 나룻배가 닿던 곳이라 하여 갯마을이라 한다. 길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을 가로 질러 이어져 있다. 각종나무들이 이름표를 달고 맞이하니 마음 또한 시원해진다.

산림환경연구원은 41ha의 넓은 터에 910종의 수목을 보유하고, 자연학습교육장을 만들어 놓았다. 산림전시실, 야생화 꽃밭, 무궁화동산, 습지 생태연못 등 시설을 갖추어 갈보여름 없이 꽃피워 반겨주니 꼭 둘러 보아야 할 곳이다.

📍경주시 남산동 725-2



○ 화랑교육원과 석조감실¹⁴

텅 빈 석조감실, 부처님은 어디에

화랑교육원은 화랑의 혼이 삼국통일의 기본 정신이었기에 후손들에게 화랑의 얼을 계승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바른 품성의 인재양성을 위해 1973년 설립하였다.

곧은 기상의 소나무가 울울창창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고, 일천바위가 굽어보는 곳에서, 천하를 호령할 새로운 화랑이 심신을 수련하는 곳이다.

운동장과 건물사이 숲속 속에 판자 같은 바위로 조립한 석굴 같은 감실이 있다. 별로 다듬지 않은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삼고, 그 위에 네모꼴 판석 4매를 겹구하여 공간을 만들었다. 받침돌 위로 양쪽 엄면과 뒷면을 높이 세운 뒤에 그 위로 덮개돌을 얹어 앞쪽을 트이게 했다. 감실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길쭉하고 둥근 연화대좌이다. 이 연화대좌로 인하여 불상이 안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시 남산동 830-5



○ 헌강왕릉¹⁵과 정강왕릉¹⁶

(사적 187호·사적 186호)

구불구불 숲속과 진달래가 황홀하게 어우러지는 숲길

헌강왕(憲康王, 875~886) 시대는 신라말의 태평성세였다. 서울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들은 연이어져 있고, 초가는 없었다. 숲으로 밥을 짓고, 풍악과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비와 바람도 사철 순조로웠다. 일본왕이 사신을 보내 조빙하기도 하였다. 동해왕의 아들 처용이 왔고, 남산신이 내려와 춤을 추기도 하였다. 왕릉은 흙으로 쌓아올린 원형봉토분으로서 밑둘레에는 장대석을 4단으로 쌓아 보호석으로 삼았다.

정강왕(定康王, 886~887)은 헌강왕의 동생으로 재위 2년(887) 봄 정월에 황룡사에서 백교회를 열고 강설(講說)을 들었으며, 이찬 김요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재위 2년에 후사(後嗣) 없이 병환으로 돌아가시니 여동생 진성여왕(眞聖女王)이 왕위에 올랐다. 왕릉은 헌강왕릉과 비슷하지만 밑둘레 호석이 3단이다.

두 왕릉 모두 도로에서 100여 m 거리로서, 구불구불한 소나무 숲길은 남산의 또 다른 경관이다. 특히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소나무와 어우러진 모습은 빼어난 풍경이다. 헌강왕릉에서 정강왕릉까지는 도로로 나가지 말고 숲 길을 걸어보자.

○ 찾아가기

화랑교육원과 통일전 사이의 도로에서 약 100여 m 올라간다. 주차는 통일전 주차장을 이용한다.



○ 통일전¹⁷

남북통일의 염원 향 끝에 사르고

남산은 화랑들이 몸과 마음을 닦던 성지와도 같은 산이다. 신라는 660년 백제를 병합하고 668년 고구려를 멸하고, 676년 이 땅에 주둔하던 당나라 군사를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삼국문화를 융합하여 통일신라문화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통일전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삼국통일의 역사적 성업을 완수한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장군의 업적을 길이 찬양하고 화랑의 호국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발전하는 조국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조성되었다.

세 통일 영웅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고, 회랑에는 삼국통일의 기록화가 전시되어 있다. 또 삼국통일기념비와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장군의 사적비가 있다. 무엇보다도 남산의 동쪽 벌판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여 좋다.

경주시 칠불암길 6



○ 서출지¹⁸

(사적 138호)

천년 전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연못

통일전주차장 남쪽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 연못가에서 배롱나무 꽃이 만발할 때 남산과 함께 바라보는 이요당(二樂堂)의 경치는 한 폭의 수채화다.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 핀다. 이 연못에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21대 비처왕(소지왕)이 즉위한 지 10년 되던 해(488) 정월에 왕궁을 명활성에서 월성으로 옮겼다. 신하들을 거느리고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할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쥐가 사람의 말로 이르기를, “이 까마귀 가는 곳을 찾아 가시오.” 하였다. 왕은 기사(騎士)에게 명하여 까마귀를 따라가게 하였다. 남산 동쪽 피촌(양피사촌)에 이르러,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

가, 문득 까마귀가 날아간 곳을 잃어버렸다. 이 때 한 늙은이가 못 속에서 나와 글을 올리니, 걸봉에 쓰여 있기를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떼어보지 않고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겠다.” 하니,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 하였다. 왕이 그렇다고 여겨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 「거문고갑을 쏘라」고 쓰여 있었다. 왕이 궁중으로 돌아와 거문고갑을 쏘니, 내전의 분수승(焚修僧)과 궁주(宮主)가 몰래 간통(奸通)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형하였다.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해마다 정월 상해(上亥) 상자(上子) 상오일(上午日)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꺼려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정월 16일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을 지어 제사 지내니, 지금까지도 이를 행하고 있다. 이후 이 못을 서출지(書出池)라고 이름하였다.

이 이야기는 신라의 전통적인 토속 신앙과 불교의 갈등, 불교의 수용을 둘러싼 신라 왕실과 귀족 집단의 대립, 내지는 소지왕에 반대하는 왕실 내부 세력에 대한 제거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못에 1664년 임적선생이 이요당을 짓고 연꽃과 배롱나무를 심어 자연을 즐기며, 선비의 고고한 심성을 수련했다.

봄에는 매화,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이 어우러지고, 여름에는 백일홍과 연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노란 은행나무잎과 단풍이 아름답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겨보자. 연못 주변에는 조명을 더하여 밤에도 아름답다.



○ 찾아가기

경주시내에서 11번 버스 탑승 후 통일전 앞에서 내리면 된다. 승용차는 통일전 주차장을 이용한다.

경주시 칠불암길 6

○ 남산리절터 동서3층석탑¹⁹⁾

(보물 124호)

양식을 달리한 두 기의 탑 아름답게 서 있다



『삼국유사』의 염불스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양피사지로 추정되는 곳에 동서로 삼층석탑 2기가 서 있다. 서탑은 이중기단으로 된 일반적인 양식으로 석가탑에 버금가는 조화와 균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탑이다. 상층 기단에는 팔부중상을 조각했다. 팔부중은 원래 힌두의 신들이었지만 불교에 수용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 되었다. 남면 오른쪽의 건달바상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신인데 사자탈을 쓰고 있으며, 왼쪽 아수라 상은 얼굴이 셋이고 팔이 여덟개로 손마다 무기를 들고 있으며 위로 올려든 손에는 해와 달이 들려있고, 배 앞에 있는 손에는 해골이 들려 있다. 동면 왼쪽의 아차상은 귀신 나라의 왕으로 염주를 입에 물고 손으로 헤아리고 있다. 오른쪽은 용왕으로 머리에 용관을 썼고 손에는 여의주가 들려 있다. 북면에는 얼굴 좌우에 소머리와 말머리가 달려있는 긴나라와 뱀의 신 마후라가가 새겨져 있으며, 서면에는 금강저를 들고 있는 천(天)과 주둥이가 독수리 부리로 된 새의 신 가루다가 새겨져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동탑은 광대한 이중의 지대석 위에 세운 전탑의 양식을 띠고 있는 모전석탑이다. 동탑은 곳곳하고 험차게 솟아있어 남성답고 서탑은 부드럽고 화려하여 여성스럽다. 이 탑은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처럼 형식을 달리하는 쌍탑으로 알려져 왔으나, 양쪽 탑의 지면의 높이가 다르고, 동서축이 달라서 별도의 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찾아가기

서출지를 지나 남산동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 석탑 부근 주차할 장소가 있다. 서출지에서 도보로는 5분 소요.

📍경주시 남산동 226-2

염불사지(念佛寺址)²⁰⁾ ○

서라벌 360방 17만호에 울려 퍼지던 염불소리 다시 들린다

양피사지에서 다시 남으로 700여 m 가면 절터에 탑 2기가 있다. 1기는 불국사역 앞 공원에 있었고, 1기는 발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을 2009년에 복원했다.

탑은 이중 기단 위에 장중하게 세워졌으며 층간 체감울과 옥개석, 탑신 사이의 공간이 넓어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다. 상하층 기단 모두 탱주(撐柱)가 2개씩 새겨져 있어 석가탑과 같은 시대인 8세기 중엽의 탑이다. 탑은 본래 자연스런 바위처럼 된 돌무더기 위에 세워져 있었으나 복원하면서 깎은 돌로 반듯하게 축대를 쌓아 올려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남산 두봉 기슭에 피리촌이 있고, 두계에는 피리사라는 절이 있었다. 절의 스님은 늘 아미타불을 염하는데 그 소리가 성안애까지 들려 360방 17만호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높고 낮음이 없는 소리는 한결같이 낭랑하여 모두가 그를 공경하여 염불스님이라 불렀다. 그가 죽자 소상(塑像)을 만들어 민장사에 모시고 그가 본래 살던 피리사를 염불사로 고쳐 불렀다. 이 절 옆에 또 절이 있는데 마을 이름을 따서 양피사라 했다.” 한다 이 탑은 복원할 때 스리랑카 종교부장관이 친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봉안하였다.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다.

염불스님의 염불소리가 실바람을 타고 낭랑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 찾아가기

양피사지에서 남산동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 주차장이 있다. 양피사지에서 도보로는 약 10분 소요.

📍경주시 칠불암길 125

『동남산 가는 길』이 끝나도 길은 끝이 아니다.

남산의 마애불상 가운데 걸작 중의 걸작으로 꼽히는 칠불암 마애불상군과 신선암 마애보살 반가상을 놓치지 말자.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석굴암 불상보다 이른 통일신라 불교미술 발전기의 신라 불상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남산에 있는 문화재 중 유일한 국보이기도 하다.

수십 길 벼랑 위 하늘나라에서 구름을 타고 노니는 듯 한 신선암 마애보살 반가상은 또 어떤가. 두세 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수십 길 낭떠러지 위에 놓인 바위에 새겨진 이 보살상은 남산에 있는 불상들이 어떻게 자연과 어우러져있는지 잘 보여준다.

남산의 불상들은 조각가의 숨씨를 뽐내기 위하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다. 신라의 석공들이 바위에서 부처님 모습을 찾아 내었을 뿐...

 **찾아가기**

염불사지 석탑 앞에서 칠불암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잘 나 있다. 염불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간다. 1시간 소요. 칠불암에서 약 10여분 올라가면 신선암이 있다. 왕복 2시간 40분 소요. (통일전에서는 3시간)

(대형차량은 통일전 주차장 이용)

 경주시 칠불암길 125



심산궁곡 바위 절벽 위에 화엄세계를 구현하다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동남산에서 깊은 골짜기로 꼽히는 봉화골에 있다. 신라시대 유적으로 사방불과 삼존불 등 일곱 불보살상이 남아 있는 곳에 근세에 한 암자를 지었고 칠불암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힘차면서도 화려한 기와무늬며 귀인들이 기도 드리고 중병을 고쳤다는 비석조각들로 보아 나라에서 경영하던 큰 절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신라 때 절 이름은 알 수 없다.

절은 경사가 가파른 험한 산등성이에 세워졌다. 절터에 올라서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거대한 바위 절벽의 불상군이 압도적으로 두 눈에 가득 찬다.

바위 절벽 중턱에 좁은 터를 만들기 위해 돌 축대를 이단으로 쌓았다. 그 위에 바위를 병풍처럼 깎아 석가삼존불을 높은 돌을새김으로 새기고, 그 앞에 단을 쌓아 사면 바위에 사방불을 새겼다. 동면은 동방유리광세계 약사여래이고, 서면은 서방정토극락세계 아미타불이다. 남면과 북면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높이 5m, 너비 8m로 병풍처럼 솟아 있는 절벽 바위 면에 거의 입체상 만큼이나 높은 돌을새김으로 새겨진 삼존불은 규모와 솜씨 모두 남산 불상 중 으뜸이다. 보존상태도 좋아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불상들은 신라불교미술의 발전기로 꼽히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그 시대 최고의 걸작이다.



○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㉔

(보물 199호)

남산에 나루신 도솔천의 미륵보살 ...

신선암은 칠불암 삼존불의 배경이 되는 바위의 높은 벼랑 위에 있다. 칠불암 마애불상군의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바위 절벽을 오르면 기묘한 바위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길이 매우 험하다. 마치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같다.

힘들게 올라 마침내 넓은 바위산 중턱에 닿으면 수십 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을 돌아가면 우뚝 솟은 바위가 있는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이 새겨져 있다. 서라벌 벌판이 한눈에 펼쳐져 가슴이 확 트이는가 싶더니, 뒤돌아서 보살상과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몽클해진다. 보살상의 모습 또한 신비롭다. 보리수 잎 모양의 감실을 파고 구름 위에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 편안히 앉아 계신다. 오른손엔 꽃가지를 들고 왼손은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도솔천 하늘을 유유히 노니시는 모습이다. 표정 또한 미소를 머금은 듯, 아닌 듯 초연한 모습이다.

잠시 앉아 보살상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면 나도 또한 도솔천에 있는 듯하다. 이곳이 바로 서라벌 남산의 도솔천이다. 세상은 푸른 소나무 파도를 지나 서라벌의 넓은 바다에 맞닿아 있다. 멀리 산봉우리들이 농담(濃淡)을 달리하며 섬처럼 떠 있다. 어느덧 시끄럽던 마음도 가라앉고 이 순간만큼은 유유자적 보살상과 함께 도솔천 하늘을 노닐고 싶다. 이곳에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새긴 옛 신라인들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수십 길 낭떠러지 위에 놓인 바위에 새겨진 이 보살상은 남산에 있는 불상들이 어떻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지 잘 보여 준다. 남산의 불상들은 조각가의 숨씨를 뽐내기 위하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다. 신라의 석공들이 바위 속에서 부처의 모습을 찾아내었을 뿐 ...

이 보살상은 보통 관세음보살로 보고 있으나, 도솔천의 미륵보살로 보는 것이 주변 모습과 더 어울릴 것 같다. 신라불교미술의 전성기인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



경주남산 재밌게 보는 방법

1. 가장 좋은 방법

- * 토·일·공휴일에 시행하는 경주남산유적답사안내(무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뒤 26쪽 안내)

2. 혼자 또는 친구 끼리 찾아 갈 때

- * 최고의 코스

- 서남산	(4:00 ~ 5:00 소요)
- 삼릉골	(2:30 ~ 3:30 소요)
- 동남산 산책	(3:00 ~ 4:00 소요)
- 칠불암(신선암)	(3:00 ~ 4:00 소요)

* 문화가 있는 힐링 코스

- 남산탐방길 (3:00 ~ 5:00 소요)
- 삼릉 가는 길 (3:00 ~ 4:00 소요)
- 동남산 가는 길 (4:00 ~ 6:00 소요)

- * 남산안내소(서남산주차장 054-742-1942, 통일전주차장 054-743-1942)에서 지도와 악도, 가이드북을 얻어서 천천히 답사한다.

3. 안내해설사 동행(유료)

- * 나(또는 단체) 만을 위한 안내해설사 동행 답사
- * 남산 또는 경주의 어느 문화유산이라도 맞춤 코스로 안내 가능
- * 경주남산연구소(<http://www.kjnamsan.org/>) [전문안내인 요청]에서 신청하시면, 경주남산연구소(054-777-7142)에 전화 신청
- * 코스는 상담하여 도와 드립니다.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안내	연중 시행	3~11월 시행					
		삼릉골	남산탐방길	동남산	서남산	남남산	삼릉 가는 길
시간	09:30 ~13:3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09:30 ~13:30	09:30 ~13:30
1 토	●					●	
일	●	●					
2 토	●						●
일	●		●				
3 토	●						
일	●			●			
4 토	●					●	
일	●						
5 토	●						
일	●						
공휴	●						
출발지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 [삼릉골]은 연중 운영하며, 다른 코스는 3월~11월 운영합니다.

◦ 남산달빛기행(별도 안내)

- 모든 답사는 참가비 무료이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여 해설합니다.
- 모든 답사 프로그램은 답사 전날까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은 (사)경주남산연구원 홈페이지(www.kjnamsan.org)에서 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는 보다 세부적인 일정과 운영시간 등이 공지됩니다.
- 문 의 : 054-777-7142
- 제 공 : 전문해설사 동행 해설, 남산지도, 기념엽서 등
- 준비물 : 간식, 생수, 수건, 등산차림, (하루코스) 점심도시락 필수
- 참가비 : 없음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지 역	목적지	주 소	주차비(1회)	비 고
동남산	불국 입구	경주시 인왕동 180-3		
	탑국 입구 주차장	경주시 배반동 1132-69		버스 가능
	탑국 옥룡암	경주시 배반동 1114		
	보리사 입구	경주시 배반동 1132-60		버스 가능
	보리사	경주시 배반동 산 66-1		
	산림환경연구원	경주시 남산동 725-2		
	화랑교육원주차장	경주시 남산동 830-5		버스 가능
	통일전주차장	경주시 칠불암길 6	무료	버스 가능
	남산리 탐(양피사지)	경주시 남산동 226-2		
	염불사지	경주시 칠불암길 125		
북남산	사마소	경주시 제매정길 47		
	월정교주차장	경주시 천원2길 11	유료(미정)	버스 가능
	상서장주차장	경주시 인왕동 276-3	무료	버스 가능
	서남산	오름주차장	경주시 탐동 231-1	대2,000, 소1,000
	월암고택	경주시 식해골길 35		
	나정	경주시 탐동 700-1		주차시설 없음
	육부전주차장	경주시 남산길 37-10	무료	버스 가능
	일성왕릉	경주시 남산길 99		
	포석정주차장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지마왕릉주차장	경주시 배동 483-1		
	삼불사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92-25		
	서남산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47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약수골 입구(월성대군단소)	경주시 포석로 534-1		
	황금알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508		버스 가능
약천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482		버스 가능	
	용장리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용장4길 10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툭수골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734-1		주차시설 없음
	용산서원	경주시 포석로 110-34		버스 가능
	남남산	열암곡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299	무료



동남산 가는 길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말까지 신라불교미술을 만날 수 있는 코스이다.
이 길은 들길, 숲길 등 경주의 자연과 역사와 전설, 문화유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힐링코스이다.

